

은행점포의 혁신... 공연보고 VR체험하고 '복합문화공간'

비대면거래 증가로 지점 감소세
공실 점포·사택·합숙소 등 매각
점포 변신으로 고객 접근성 높여

은행들이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점포 전략을 펼치고 있다.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지점수를 줄이고 유희(遊休) 부동산을 매각하는 한편, 남은 점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추세다.

◆점포 줄이고, 부동산 팔고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KEB하나·신한·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지점 수는 3124개로 전년(3333개) 대비 6.27%(209개) 줄었다. 2015년(3513개)과 비교하면 2년 만에 11.67%(389개) 감소했다.

은행들이 지점을 축소해 나가는 가장 큰 원인은 비대면 거래의 증가다. 금융거래의 방점이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이동하면서 내점 고객이 급감한 영향이다. 이에 국내 점포가 1000개가 넘는 국

〈4대 시중은행 지점 수 추이〉 (단위: 개)

	2017년	2016년	2015년
국민	924	1005	1022
하나	696	785	853
우리	765	780	842
신한	739	763	796
합계	3124	3333	351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민은행도 지난해 924개까지 줄었다.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최근 불필요한 지점 또는 통폐합 등으로 공실이 된 점포 매각에 나섰다. 직원들의 사택이나 합숙소 등도 매물로 내놨다.

임대안내사이트 온비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4일 서울 후암동지점, 부산 양정동지점, 경남 삼천포지점, 충남 홍성합숙소 등 7개 부동산의 입찰을 진행했다. 이 중 강원 속초사택, 부산 모라동사택, 충청북부사택 등 3곳은 유찰됐다.



KB국민은행의 '청춘마루' /KB국민은행

국민은행도 지난달 농구단 합숙소, 천안 직원숙소 등 12건의 부동산을 내놨다. 이 중 서울 역촌역 출장소, 광주 송정지점 등 2곳만 낙찰됐다.

신한은행은 3월에만 지점 및 근린생활 등 30여 건에 달하는 부동산 매각을 진행했고, 이 중 인천동지점, 성포동지점, 신길중앙지점, 목동지점 등이 낙찰됐다.

KEB하나은행은 옛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에 따른 점포 재조정으로 매년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다.

올해도 100여개에 가까운 입찰 공고를 냈다. 지방은행 중에선 대구은행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대구 성서3동점과 은하점에 대한 입찰을 했다.

◆새롭게 변신하는 은행

은행들은 불필요한 점포는 없애는 동시에, 남은 점포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최근 흥대에 유스(youth) 고객 전용의 특별한 복합문화공간인 'KB락스타 청춘마루'를 개관했다. 청춘마루에는 다양한 뮤지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연 공간인 스테이지(Stage)가 마련됐다. 공연이 없는 날에는 스터디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세미나룸, 디지털 라이브러리, VR 체험 공간 등으로 설계됐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홍익대 흥문관에 디지털 존을 배치한 영업점을 개점했다. 디지털 존에서는 기존 입출금 창구 업무 90% 이상을 고객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며, 흥대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은 영업시간 외에도 영업점 일부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또 디지털 갤러리 공간도 만들어 재학생의 미술작품 전시장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최근 오피스 밀집 지역인 광화문에 힐링 서점을 컨셉으로 한 '컬처뱅크 2호점'을 열었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 편하게 방문해 맥주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쉼터 역할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개점하면서 세련된 이미지의 고객창구 '아트뱅크(Art Bank)'를 구현했다. 이곳은 고객들이 대기하면서 아트피아노, 트리아트, 폰부스 등을 통해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꾸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점 고객이 눈에 띄게 줄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매년 점포 재조정을 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점포는 매각해 자산으로 활용하고 남은 점포는 문화 공간 등으로 꾸며 고객의 눈길을 끄는 전략을 이용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BNK부산은행, 분할상환 대출금 1년 유예

중소 자금난 해소·포용적 금융 실천
총 1조6000억원 최장 상환기일 연장

BNK부산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상생경영을 통한 포용적 금융 실천 강화를 위해 분할상환 대출금의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분할상환대출 유예 대상은 조선, 철강, 자동차 등 동남권 지역 주력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및 도·소매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부산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금 중 올해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분할상환대출과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할부상환대출 등 총 1조6000억원에 대해 별도의 조건 없이 최장 1년간 상환기일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영업점장 전결로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내부 업무 절차도 간소화했다.

부산은행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약 5조원 규모의 지역 중소기업 분할상환대출을 연장하며 지역 기업과의 상생경영을 실천한



BNK부산은행 본점. /BNK부산은행

바 있다.

BNK부산은행 김성주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이대훈 은행장 베트남 방문... 현지경영 시동

(NH농협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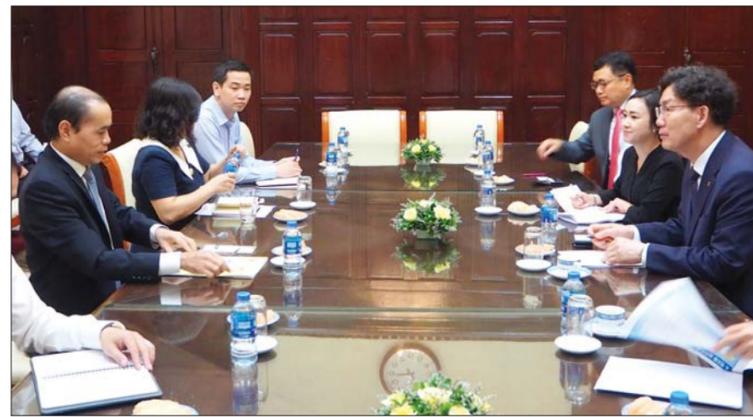
중앙은행 방문해 당국 협조 요청
핀테크 등 다방면 협력사업 확대

NH농협은행은 이대훈 은행장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현지 사업 확대를 위한 국외점포 현장경영에 본격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행장은 지난 8일 베트남 내 외국계 은행 인가를 담당하는 베트남 중앙은행을 방문해 농협은행 하노이지점의 영업기금 증액과 지점 추가 개설에 대한 당국의 협조를 요청하며, 농협은행의 베트남 내 사업확장과 농업금융 발전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베트남 중앙은행의 외국계 은행 인가를 담당하는 응웬 동 띠엔(Nguyen Dong Tien) 부총재는 한국의 농업발전과 함께한 농협은행의 농업금융 및 정책금융 역량에 관심을 표하며 현지 사업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 행장은 지난 7일 오후에는 베트남 최대 국영은행인 아그리뱅크(Agri Bank·농업농촌발전은행) 팜득안(Pham Du



NH농협은행 이대훈 은행장(오른쪽 첫 번째)이 지난 8일 베트남 중앙은행 응웬 동 띠엔 부총재(왼쪽 첫 번째)와 농협은행의 베트남 내 다각적 사업 확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NH농협은행

c An) 부회장 및 띠엣 반 타인(Tiet Van Thanh) 은행장 등을 만나 진행 중인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농협은행과 아그리뱅크는 2013년 3월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인력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올해 1월 말에는 NH-아그리(AGRI) 무계좌송금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사는 핀테크, 농업금융 분야 등 다양

한 방면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행장은 "2016년 12월 하노이지점을 설립한 후 1년 5개월 여 만에 영업기금 증액을 추진하는 등 현지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다"며 "앞으로 베트남의 금융산업은 물론, 농업·농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현지 유관 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KEB하나은행 스승의 날 맞아 신용대출 특별판매

KEB하나은행은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스승의 날 맞아 신용대출 특별판매에서는 대출금리가 최저 3.176%(5월 9일 기준)까지 가능하며, 특판기간은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1000억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특판 대상상품은 초·중·고교 선생님, 우량지정대학교 교수 및 사무·행정직원 대상 신용대출 상품인 '아카데미론'과 기간제 선생님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한 '프리미엄 직장인론'이다.

'아카데미론'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 까지이며, 특히 '이자 리펀드 서비스'가 있어 급여이체 및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있고 대출기간 동안 연체가 없으면 4월 중 납부한 1개월간 이자의 10%를 5월 15일에 되돌려준다.

아울러 기간제 선생님도 「프리미엄 직장인론」을 통해 동일하게 최저 3.176%(5월 9일 기준)로 특별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문호 기자 kmh@

1600억 규모 美 가스파이프라인 PF 금융주선

KB국민은행

공동주선기관 역할 성공적 수행사례

KB국민은행은 1억4500만달러(약 1600억원) 규모의 미국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주선을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발전·에너지 투자진흥회사인 아레스 EIF가 가스파이프라인 시설 운영업체와 공동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가스파이프라인 '센트럴 펜 라인'을 건설하는 데 투자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한국계 기업이 건설이나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순수한 해외 PF에서 글로벌 스폰서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공동주선기관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신한은행, 중국공상은행 등과 함께 1억4500만 달러 규모의 건설자금대출 거래를 지원했으며, 나머지는 글로벌 스폰서인 아레스 EIF가 투자를 했다. 이에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 아레스 EIF 5호에 3000만달러(약 330억원) 투자를 결정했고, 아레스 EIF는 KB국민은행에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주선을 의뢰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천연가스 운송 자산에 성공적으로 투자해 천연가스 액화·운송에서 수요처 공급 및 사용까지 북미 에너지 시장에서 폭넓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P-CBO 공모

신용보증기금은 사회공동체가 함께 번영하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유동화보증(P-CBO)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정부·지자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지정된 중소기업이다. 자기자본 규모와 관계없이 매출액의 2분의 1까지 최대 3억원의 회사채를 최장 5년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상위등급 회사채 수준의 낮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신보는 새로 도입한 프로그램의 저변 확대를 위해 '우리 함께, 가치(Valu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지원 대상기업을 공개모집한다.

/이봉준 기자 bj35sea@